



산업용 원스톱 서비스 파트너 입지 확보

한국HP(대표 최준근, www.hp.co.kr)는 실사출력 전문업체 (주)아트매니아플러스(대표 황석상, www.eartmania.com)에 초고속 와이드 포맷 디지털 프린팅 제품인 HP사이텍스 TJ8500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했다. 이로써 옥외광고 및 산업용 프린트 시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파트너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, 초고속 와이드 포맷 프린팅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.

사이텍스 TJ8500은 버스·택시 승강장 광고 및 버스래핑 광고는 물론 실내 바닥 및 창문 그래픽, 전시 패널 등 다양한 실내·외 광고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와이드 포맷 프린터로 336dpi해상도로 시간당 최대 70장 또는 시간당 400m/h의 빠른 출력 속도가 특징이다. 소재에 침투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존의 솔벤트 잉크 방식이 아닌 잉크가 기재에 도포된 후 경화되는 UV 850 수프림 잉크(HP Scitex UV 850 Supreme ink) 방식을 채택했다. 이는 친환경적이고 자외선 내구성이 뛰어난 잉크로 비닐, 현수막, 캔버스 뿐 아니라 무코팅, 무가공된 소재 등 거의 모든 프린트 소재에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600dpi 해상도의 고품질 모드로 출력이 가능, 8포인트 정도 크기의 작은 글씨도 손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요하는 실내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.

아트매니아플러스 황석상 사장은 “사이텍스 TJ8500의 도입으로 광고출력시장에서 아트매니아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빠른 출력 속도와 믿을만한 납기일을 제공하는 업체로 각인, 더 많은 광고물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동종업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,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구상하고 있다”며 포부를 밝혔다. 한국HP 이미징프린팅그룹 조태원 부사장은 “사이텍스 TJ8500로 옥외광고 및 산업용 프린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”며 “가정 및 사무용 시스템에서부터 초고속 와이드 포맷 프린팅 장비까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한국HP의 강력한 마케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프린팅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조갑준 차장 kjcho@print.or.kr